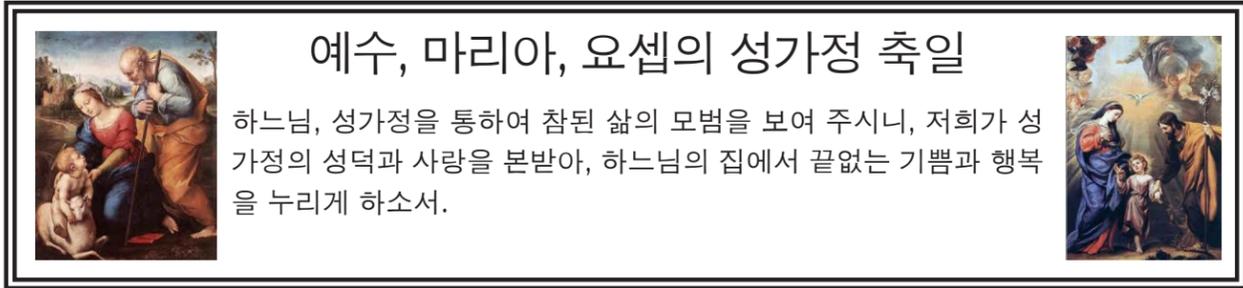


### 공동체 소식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 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 12월 기도지향

- 김호원(요한), 박정자(수산나) 가정
- 정준구(파비아노), 박혜정(카타리나) 가정

☞ 1월 기도지향은 ‘캔사스 한인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 송년 및 새해 인사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에 은총을 받았다(요한1,16).”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온 누리와 우리 모든 가정에 한 줄기 빛으로 비추어 주길 기도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하느님의 섭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밝아 오는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사랑합니다!

####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새해가 시작하는 1/1(수)은 의무 대축일입니다. 오전 11시 중심미사가 있고, 미사 후 친교의 식사가 있습니다.

☞ 1/1(수)은 5조(김경희,안혜진,김인자,정영숙,한순례)입니다.

#### 견진 대상자 모집

내년 3월 28일(금) 홀리트리니티 본당에서 견진성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를 받은 중학생 이상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견례분과에 신청 바랍니다.

#### 평협 및 단체장 발표

- \* 회장단 : 홍순익 마르티노(회장), 김태중 예레미아(부회장), 차호섭 요셉(재무)
- \* 분과장 : 윤유나 글라라(구역부), 박혜정 카타리나(전례부), 정수한 베드로(선교부), 문석찬 요셉(시설부), 김병철 베네딕토(행사부), 이우영 가브리엘(교육부)

#### 평협 및 단체장 송년회

- 일시 : 12/30(월) 오후 7시
- 장소 : 초가
- 대상 : 현임 및 전임 평협, 단체장

#### 기타

- 1월 ‘신심미사(목,금,토)’는 없습니다.
- 맨하턴과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2월부터 있습니다.
- 성탄 구유예물은 과테말라 San Miguel Escobar 본당에 송금됩니다. 많은 관심과 정성을 부탁드립니다.
- ‘매일미사’ 책 신청 받습니다. 배송료 포함, 1년 구독료 60불입니다.
- 2014년 공동체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마 침
114	210	178/496	114

#### 주일미사 복사

	항 복사	시종 복사
금주	정수한(베 드 로)	문석찬(요 셉)
	정예찬(미 카 엘)	문호진(안토니오)
차주	안광민(야 고 보)	정준구(파비아노)
	안광희(크리스토퍼)	정병훈(보니파시오)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안 젤 라)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 네 스)
차주	박혜정(카타리나)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안 젤 라)

#### 애찬 봉사자

금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임지현, 김정애
차주	손정화, 한춘희, 황의정, 양정희, 유경애

#### 헌금 봉사자

금주	백문주(엘리사벳), 박희영(카타리나)
차주	문석찬(요 셉), 최은미(아 네 스)

####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12/22	72명	340불	1,080불
성탄	83명	490불	700불
김원철, 배복선, 이지혜, 주영길, 정수한, 도태영, 김호원, 정준구(총 8 세대)			

☞ 구유예물 : 938불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3년 12월 29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M: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M: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온갖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한 오롯한 믿음을 간직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왔습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미사를 봉헌하는 오늘은 ‘가정 성화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을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 성화해설

이집트 피난 중의 휴식  
(페데리코 피오리 바로치, 1570년, 유채, 바티칸 박물관)

가정은 하느님의 사랑이 깃든 곳이며 하느님이 맺어 주신 은총의 장소입니다. 또한 가정은 항상 하느님이 함께 머무시며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가정은 운명 공동체로서 기쁨과 슬픔, 그리고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이겨내고 나누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서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는 성가정의 모습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 서 : 집회 3,2-6.12-14 <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



하느님을 두려워 하 며 그 분 의 길 을 걷 는 이 는 모 두 복 되 도 다

○ 복되어라,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그 도를 닦는 자는  
수고의 열매를 먹고살리니, 너는 복되고 모든 일이 잘 되리라. ◎

○ 너의 집 안방에는 네 아내가 마치도 열매 푸진 포도나무인듯,  
너의 상 둘레에는 네 자식들이 마치도 올리브의 햇순들 같도다. ◎

○ 옳거니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렇듯이 복을 받으리로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내리시어, 한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하기를 바라노라. ◎

제 2 독 서 : 콜로 3,12-21 <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생활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 음 : 마태 2,13-15.19-23 <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

# 쉐 마

## “형제애, 평화의 바탕이며 평화로 가는 길”



세계 평화의 날에 제가 처음으로 보내는 이 담화에서, 저는 모든 사람이, 모든 개인과 민족들이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형제애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형제애가 없으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도 없고, 확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도 없습니다. 형제애의 기초는 하느님의 부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막연하고 역사적으로 비현실적인 유전학적 부성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느님의 특별하고 매우 구체적이고 인격적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마태 6,25-30 참조).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알아 뵙고 하느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여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하느님의 가정에서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결합시키기 때문에, 곧 성자 안에서 자녀가 되기 때문에, 결코 ‘버릴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회에서, 우리는 가정과 공동체의 관계가 견고하지 못하여 관계의 심각한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형제적 관계를 재발견하고 중시할 때에만 비로소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절대 빈곤이 줄어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 빈곤이 심각할 정도로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제애의 원칙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의 지나친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무력을 통하여 폭력과 죽음을 확산시키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찔러야 할 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임을 깨달으십시오. 무력의 길을 포기하고 대화와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다른 이들을 만나러 가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주위에 정의와 신뢰와 희망을 다시 세우십시오!

형제애는 발견하고 사랑하고 경험하고 선포하고 증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만이 우리가 형제애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정치와 경제에 필요한 현실주의는, 이상도 없고 인간의 초월적 차원도 간과하는 단순한 기술적 요령으로 전략될 수 없습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자신을 열어 얻게 되는 그 폭넓은 차원으로 나아갈 때에야 비로소, 정치와 경제는 형제적 사랑의 진정한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질서를 이루고 온전한 인간 발전과 평화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한 몸의 지체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끌어안으시고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루카 22,26-27). 그러므로 모든 활동은 사람들, 특히 가장 멀리 있고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한 봉사의 자세를 특징으로 하여야 합니다. 봉사는 평화를 이룩하는 형제애의 혼입니다.

바티칸에서, 2013년 12월 8일  
교황 프란치스코

# 마중물

## 한 줌의 콩

서양의 도살장에서 돼지를 잡을 때 사용하는 특이한 방법을 소개한다.

도살장 입구부터 하나의 통로가 만들어져 있다. 이 통로의 넓이는 돼지 한마리가 겨우 들어갈 정도이다. 그 통로 바닥에는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뿌려 놓는다. 먼저 들어간 돼지가 콩을 주어먹으려고 할 때 뒤에 있는 돼지는 앞에 있는 돼지의 엉덩이를 머리로 받으면서 자꾸만 앞으로 밀어낸다고 한다. 따라서 이 통로에 한번 들어가서기만 하면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돼지 때의 행렬 때문에 계속해서 통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가다 보면 통로는 끝이 나게 되고 돼지는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이때 아래에는 자동 도살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그곳으로 돼지가 떨어지면 그 기계는 자동으로 돼지를 처리한다. 그렇게 해서 돼지는 가죽이 벗겨지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추려져서 기계 밖으로 나오게 된다.

미련한 돼지는 눈앞에 있는 먹이만 따라가다가 죽음의 벼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돼지의 운명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줌의 콩을 줌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죽음의 벼랑 끝에 서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생의 통로에 들어선 이상 죽음의 벼랑 끝에 서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은 그 죽음의 벼랑 끝에 서는 날, 한 줌의 콩을 위해 허겁지겁 달려왔던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돼지는 한 줌의 콩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사람은 콩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에게서 취해야 할 진정한 생명의 빵이 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자.

# ‘신앙의 해’교육자료

제 8절  
성령을 믿나이다.



### 68. 우리는 성령을 어디에서 인식할 수 있습니까?

나뭇잎이 흔들리면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성령을 인식하는 장소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우리는 성령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성경 안에서,
- 교부들의 증언이 언제나 살아 있는 전통 안에서,
- 성령께서 도우시는 교회의 교도권 안에서,
-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게 하시는 성사의 전례 안에서 말씀과 상징을 통하여,
-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전구해 주시는 기도 안에서,
- 교회를 이루는 은사와 직무 안에서,
- 사도적 삶과 선교적 삶의 표징들 안에서 성령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688 항).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